

19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4020.55 (+26.04)	915.27 (+13.94)	3.010 (+0.043)	1478.00 (-0.30)

계열사 100곳 정리하고 현금 회수 SK, 반도체AI·배터리 중심 재정비

3분기 종속기업 619개로 줄이고 SK스페셜티·ESR케이만 등 정리 에코플랜트에 자회사 4곳 편입 등 2년간 리밸런싱으로 재무지표 개선

SK그룹이 올해도 리밸런싱(사업 재편)을 통해 반도체AI·배터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계열사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뿐 아니라 해외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차입 부담 완화까지 맞물리면서 그룹의 재무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지주사 SK㈜의 3분기 말 연결 기준 종속기업은 619개로 지난해 말(716개) 대비 100개 가까이 감소했다. 중복 사업을 줄이고 관리 범위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리밸런싱 취지가 ‘법인 수’라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로 확인된 것이다.

올해 리밸런싱의 한 축은 해외·비핵심 투자자산 정리를 통한 현금 회수다. SK는 지난 10월 베트남 마산그룹 잔여 지분 3.8%(약 4260만 주)를 블루트리에 드로 처분했고 시장 추정 거래 규모는 약 1억2700만 달러(약 1865억원)다. 지난 2018년 지분 9.2%를 약 5250억원에



SK 사옥 전경. /SK

인수한 뒤 단계적으로 매각하면서 이번 거래로 약 6년 만에 대부분의 지분을 정리했다. 또한 SK스페셜티, SiC 전력반도체 기업 SK파워텍, 실리콘 음극재 생산사 SK머티리얼즈그룹포인 등 소재 계열 지분을 정리하고 ESR케이만·조이비오 등 투자도 매각 또는 축소해 저수익·비핵심 자산을 우선 정리했다.

포트폴리오의 ‘핵심’ 재배치도 동시에 진행됐다. 반도체 부문은 SK하이닉스 중심 재편 속에 SK에코플랜트가 SK트리켄·SK레조나·SK머티리얼즈제이앤씨·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등 반도체 소재 자회사 4곳을 편입해 역량을 모았다. AI 분야에서는 SK C&C가 SK AX로 사명을 바꾸고 AI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SK AX 판교 데이터센터를 인수해 그룹 내 9개

데이터센터 운영 체제를 갖춰 인프라 경쟁력 확대에 나섰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비용 구조를 손보는 방식의 리밸런싱이 진행됐다. SK온은 포드와 설립한 합작법인 ‘블루오벌SK’ 운영 구조를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캔터키 1·2공장(82GWh)은 포드가, 테네시 공장(45GWh)은 SK온이 맡는 방식으로, 생산성 제고와 운영 유연성·시장 대응 속도 강화를 노린다. 분할로 자산·부채·자본이 절반 수준으로 조정되면 부채비율 개선과 차입금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SK실트론’ 매각에도 고삐를 당겼다. SK㈜는 실트론 지분 70.6% 매각을 위해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실트론은 지난 2017년 인수 이후 흑자를 이어온 알차 계열사로 꼽히지만 AI·반도체 시대에 진입한 만큼 경영권 매각을 통해 그룹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 예정이다.

이처럼 SK그룹 2년간 리밸런싱을 진행하면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았던 재무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오른쪽 첫번째)가 19일 서울 종로구 르 큐제에서 열린 ‘메트로 조경대상 휴앤휴’ 시상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2025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休앤休 시상식

테마조경대상 ‘아크로 베스티뉴’ 선정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르 큐제에서 ‘2025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休&休)’ 시상식을 가졌다.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은 올해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休&休)’에 소개된 아파트 30곳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지난 달 27일 서구원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심사위원장)를 비롯해 강형문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안상철 ‘아텍’ 대표(조경기술사), 이정희 메트로신문 전무이사 등 심사위원이 부문별 대상을 최종 결정했다.

친환경대상 ‘휘경자이 디센시아’ 등 총 6개 단지 부문별 대상 명단 올라

▲테마조경대상 ‘아크로 베스티뉴(DL이앤씨)’ ▲친환경단지대상 ‘휘경자이 디센시아(GS건설)’ ▲브랜드혁신대상 ‘송도릭스오션SK뷰(SK에코플랜트)’ ▲스마트환경대상 ‘영통푸르지오 파인베르&트레센츠(대우건설)’ ▲조경혁신대상 ‘분당아테라(금호건설)’ ▲미래가치대상 ‘신검단 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2차(제일건설)’ 등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테마조경대상은 아크로 베스티뉴가 수상했다. 탁 트인 공간에 설치돼 아파트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기하학적 조형물이 수상을 견인했다. 단지 중앙에 수경시설과 어우러진 가든 스퀘어를 마련해 자연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친환경단지대상은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차지했다. 커다란 팽나무를 중심으로 조성된 아름다운 숲과 깨끗한 물에서 수생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특징이다. 곤충과 나비,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고 여러 식물을 심은 점이 친환경 단지로서의 매력을 높였다.

브랜드혁신대상은 송도 릭스오션SK뷰가 받았다. 단지에는 다양한 테마의 정원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친환경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다. 물, 돌, 바람,

나무, 빛 등 자연의 5대 요소를 활용한 비오토피아 가든과 현무암 돌담으로 만든 정원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환경대상에는 영통푸르지오 파인베르&트레센츠가 뽑혔다. 이곳은 단지 한가운데 웅장한 석가산이 자리해 있다. 에베레스트에서 영감을 받은 조형물로, 끝없는 도전과 발전을 상징한다. 여기에 입주민들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조경혁신대상은 분당 아테라가 수상했다. 암석원과 수경시설, 미술 작품 등 예술적 감성이 녹아들어 있다. 산과 바다, 바람 등 자연을 표현한 벽화, 암괴석과 조화로운 수목이 공존해 산수화 같은 풍경을 구현한 공간이 특징이다.

미래가치대상의 주인공은 ‘신검단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2차 아파트’다. 단지의 상징물은 제주도의 해변가 절벽 위에서 190년을 살다 온 팽나무다. 팽나무들이 마치 하나의 숲처럼 들어서 있는 마당은 전통적 아름다움과 현대적 설계가 조화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대상은 더샵 일산퍼스트월드가 차지했다. 친환경 주민 공간인 그린어스 그라운드, 네이처테라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돼 있다. 숲길을 연상시키는 울창한 초목으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조경은 최근 아파트를 차별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다.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이 입주민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서다.

금호건설의 아트시스, DL이앤씨의 드포엠 등 건설사 자체 조경 브랜드가 생겨나고 조경 전문 기업과의 협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조경을 통해 아파트 고급화를 시도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제주도 자연물에서 영감을 받은 조경 사례가 인상적이었다”며 “메트로 아파트 조경상이 앞으로도 아파트 미학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m-커버스토리

투자상담·상품설계 돕는 ‘AI 업무동료’

AI경제 이끄는 증권사들

NH투자증권 ‘터미널 X’ 해외투자 리스크요인 등 정보제공 하나증권 ‘공포탐욕시그널’ 투자심리 분석 AI 서비스 출시

“조직 전반에 걸쳐 지능형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장착하고 이 강력한 기술을 업무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게 목표다.”(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2025년 7월 국제경영학회(AIB) 기조연설) “증권업계에서 AI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전례 없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최근 AI 트레이딩 에이전트 개발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 독창적인 AI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AI가 고객 투자와 금융투자 업무의 세계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전에는 소규모 스타트업 위주로 금융투자 부분 AI의 생태계가 구성됐지만 이제는 대형 증권사와 자산 운용사들이 앞다퉈 자체 AI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활용 범위도 단순한 리포트나 투자 상담을 넘어 업무 판단과 상품 설계, 리스크 관리까지 관여하는 ‘업무 동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정보 제공, 자산관리, 플랫폼, 마케팅 등 전방위에 AI를 접목하며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투자 서비스와 리서치에서 AI 활용이 두드러진다. 방대한 뉴스와 기업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맞춤형 보고서를 제공하고, 투자심리를 수치화한 지표를 만들어 매매 시점 판

단을 돕는다. AI가 제안한 포트폴리오를 펀드매니저가 조정하는 자산 운용 상품도 등장해 성과를 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들이 활용해 온 데이터 분석과 리서치 환경을 개인투자자 영역으로 끌어왔다. ‘터미널 X(Terminal X)’를 통해 해외 대안 데이터와 시장 분석을 결합해 종목의 리스크 요인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토스증권은 해외기업 어닝콜을 실시간으로 번역·제공하고, 발표전 관전 포인트를 제시하고 실적·가이던스·Q&A를 구간별로 나눠 보여준다. 해당 서비스는 누적 이용자 수는 출시 6개월 만에 120만명을 돌파했다. 하나증권은 최근 투자심리 분석 AI 서비스인 ‘공포탐욕시그널’을 출시했다.

〈3면에 계속〉

/하정윤 기자 zelkova@

메트로 한줄뉴스



▲김정은, 이틀 연속 지방공장 준공식 참석…팔주에도 동행 /사진 뉴시스

▲‘국정자원 화재’ 29~30일 완전 정상화…‘전산망 장애’ 복구 3개 남아

▲‘여가부 폐지’ 위기사 반등…젠더갈등 해소 이뤄낼까

▲세종시 찾아가는 조국…조국혁신당, 내년 지방선거 세종시장 노린다

▲민주당 광주, 불법 당원 의혹·여성 특구로 ‘시끌’

▲대미투자 3500억弗 운용 정부 주도 한미전략투자공사, 국회 입김 세질까